



## 해외 레이다



C-130 Airborne Early Warning and Control(AEW & C)기

### 美 공군, AWACS형 C-130 수송기 수출 희망

美 공군은 조기경보기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AWACS형의 C-130 수송기 수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미 태평양, 서유럽, 중동 국가 및 호주에 대하여 동 항공기에 대한 판촉 브리핑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공군 전자체계센터(Electronic Systems Centers: ESC)는 해외수출에 제공할 기종에 공중 조기경보장비와 General Electric사가 생산하는 AN/APS-145레이다 장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업체로는 Northrop Grumman사가 있다.

한편, Northrop Grumman사는 해외 수출용으로 Lockheed Martin사의 C-130기에 E-2C Hawkeye 조기경보장비의

결합을 희망하고 있으며, 부사장 John Harrison씨에 의하면 전세계 34개국에 약 30억~40억불 상당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美 공군 해외사업부에서는 1년 전부터 이 사업을 검토해왔지만, C-130형 조기경보기가 E-3B의 경쟁상대가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으며, 단지 지역적으로 적은 나라들의 소규모 조기경보소요 충족정도만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 대만, 국방비 지출규모 8.4% 상향 계획

대만은 내년도 국방비 지출 규모를 8.4% 인상한 1,017억 대만달러(미화 37억불)로 정했는데, 신형무기와 여타 군사장비 구매예산은 1%증가한 605억불 규모로써 F-16, Mirage 2000-5 전투기, C-130 수송기, 대잠헬기, E-2T 조기경보기 등이 주요

구매대상 장비이다.

기타 획득대상 장비는 다음과 같다.

— 미제 개량형 방공장비 : 112억불

— M60A3 주력전차 : 590백만불

— 장갑상륙정 : 400백만불

— 각종 방공미사일 : 250백만불

만불

— 대침투장비 : 34억불

— 신형 레이다 : 530백만불

— 전자전 장비 : 88백만불

— 방공 및 후송장비 : 232.7백만불

### 프랑스, 수출정책 수정 필요 경고

프랑스의 Millon 국방장관은 자국의 군수업체들이 1990년 이후 세계수출시장 기반을 미국과 유럽국가들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수출 정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프랑스 방산업체의 생존에 커다란 위험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작성된 Durieux보고서에 의하면, 프랑스는 세계에서 무기수출국 3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점유율은 1990년에 15%에서 최근에는 10%수준으로 줄었고, 금액면에서는 1980년 500~600억 프랑(100~120억불)에서 연간 200억 프랑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다고 한다.

## 프랑스와 독일의 방산합작사업 위기

프랑스와 독일간의 방산협력 문제가 추진중인 2개의 주요 조달사업에 관한 심각한 이견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한다.

문제의 사업은 헬기와 위성 사업인데, 프랑스는 Tiger 헬기와 NH-90 헬기의 구매수량을 감축하겠다고 독일에 통보한 반면에, 독일에서도 공동첩보 위성사업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Jane's지가 획득한 정보에 의하면, 프랑스는 Tiger 구매수량을 210대에서 90대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이며, NH-90 수송헬기의 경우에는 150대에서 50대 수준으로 줄임으로써 장비단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프랑스 구매수량 감축은 NH-90 해상헬기사업 추진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독일도 프랑스의 감축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NH-90대신 Lynx 헬

기를 추가구매할 것이라고 한다.

## 美 하원, 신형 공격잠수함 사업 지원

美 하원의 국가안보위원회는 '97년도 방위비 세출예산법안에서 신형 공격잠수함 설계사업 착수를 해군에 명하는 한편, 개발대상 잠수함기술 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승인했으나, 해군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병함 건조 개발사업은 진행속도에 제동을 가하였다.

이에 따라 하원은 차세대 핵 공격형 잠수함 연구개발 예산으로 50백만불을 승인했으며, 현재 해군과 General Dynamics Electric Boat Division에서 설계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과 Electric Boat간의 계약에 의하면, Electric Boat가 1번 잠수함을 1998년에, Newport News 조선소는 1999년에 2번 잠수함을 각각 건조하기로 되어있으며, 이 두 조선소가 이번에 승인된 50백만

불의 예산을 분할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하원은 잠수함 연구개발과 기타 첨단 잠수함기술 개발을 위하여 해군이 요구한 487.6백만불에 200백만불을 추가 승인했는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첨단 잠수함 개념 응용 연구 및 국방첨단연구본부(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로부터 해군으로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 18백만불

— 음향탐지 및 처리, 음향 신호 처리, 유체역학 기술, 구조음향술, 첨단추진장치 개념 등 핵심기술 개발실험 : 60백만불

— 수동 거리측정/목표물 동작분석, 함정전반통제체계 개량 등 기술개발 실험 : 19백만불

— 전자기계/전자유체 작동 장비, 첨단 용접처리, 첨단 추진장치 조립, 첨단 도금 및 탄성사출장치 등과 같은 기술개발 : 19백만불



NH-90 헬기



### 이스라엘, 미국의 첨단미사일 판매 요구

아랍에미레이트를 포함하여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AIM-120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Advanced Medium Range Air-to-Air Missile : AMRAAM)의 인도 준비가 진행중인 한편, 미국은 잠재위협 대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대 이스라엘 이전을 꺼려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스라엘이 소량의 AMRAAM을 자국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F-15I 기에 장착하고자 장비 판매승인을 미국에 요청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첨단 국방기술을 최우선 이전 받은 우방국의 하나인데, 지금까지는 중동지역에 미사일 장비가 경쟁적으로 도입되는 것을 우려하여 AMRAAM의 구입을 미루어 왔으나, 지난해 미 정부가 동장비를 80억불 상당의 대 아랍에미레이트 항공기 판매사업에 Package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하자 태도를 바꾸어 이번에 16발 판매를 요구하게 되었다.

### 태국, F/A-18기 구매 결정

최근 태국이 McDonnell Douglas 사의 F/A18 Hornet 기 8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이 경쟁기종인 F-16기 운용국가에 최초로 F/A-

18 기를 판매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계약금은 항공기 8대, Harpoon 미사일, 수리부속 및 지원장비를 포함하여 390백만불 상당인데, 태국은 이 항공기를 공중전, 해상전 및 공대지 임무수행에 투입함으로써 태국이 운용중인 36대의 F-16 A/B Block 15의 전력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은 정부대 정부거래로 이루어졌지만, 별도로 McDonnell Douglas 사와 태국 정부간에 계약액의 25%에 상당하는 간접절충교역계약이 체결되어, 일본에 소재한 중간업자가 약 9천만불 상당의 태국제품을 국제시장에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1993년에 8대 구매)에 이어 F/A-18기를 구매한 두번째 국가이며, 세계적으로는 9번째 국가이다.

미국의 업체관계자에 따르면, F/A-18기의 해외 수출증진을 위하여 폴란드, 헝가리, 체코 및 호주 같은 국가에 판촉 활동중이며, 특히 호주는 현용 F/A-18 기에 대폭적인 성능개량사업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MRAAM 미사일

태국은 이번에 F/A-18 기 외에도 General Electric Aircraft Engine 사의 F404-GE-402 엔진과 Hughes Aircraft사의 APG-73 레이더를 포함 구매하도록 되어 있으나, AIM-120 미사일은 제외되었다.

한편, 장비인도는 1999년 2월에 시작하여 10월에 완료될 전망이다.

### 미국과 영국의 전차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미국과 영국 육군은 각각 지상전력강화를 위하여 90년말까지 주력전차에 최신의 장비를 무장하는 개량사업을 추진중인데, 美 육군은 M1A1 Abrams 전차를 M1A2 사양으로 개량할 예정이며, 영국은 Challenger 1 전차를 장갑강습차량 및 교량전차로 개량하는 사업을 검토중에 있다.

영국은 Vickers Systems 사가 생산하는 Challenger 2전차

의 신뢰성 문제때문에 427대의 Challenger 1전차를 최소한 1998년까지는 운용할 계획이며, Challenger 2전차의 실전배치 계획시기(1996년)도 불가피 연 기될 것이라고 한다.

美 육군은 구형 M1A1 Abrams 전차를 M1A2 사양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1997년에 착수하여 매년 120대씩 개량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과 영국의 신형 전차에 대한 잠재시장은 아시아와 구 소련의 영향권에 있었던 국가에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문가들은 중동과 터키의 소요만 약 1,000대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 중 사우디가 116대의 M1A2를, 쿠웨이트는 진행중인 218대에 추가로 150대 정도를 구매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육군은 현재 4,000여대의 M1A1을 보유하고 있다.

## 핀란드, 러시아와 미사일거래에서 바터제 적용

핀란드는 러시아로부터 부채 상환 대가로 첨단 중거리 방공 체계 850핀란드 마르크(177.1백 만불) 상당을 도입하기로 합의 했다.

이번 거래대상 미사일은 러시아에서는 Bukm-1으로 지정되어 있고, NATO에서는 SA-11로 불리는 장비인데, 미사일

본체와 함께 관련 레이다, 사격 통제장비 및 수리부속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핀란드는 또한 러시아가 대미사일 요격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S-300 미사일 구매도 검토중이라고 하나, 핀란드의 군사요구 충족에는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핀란드는 독일 통일후 구 동독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제 장비획득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는 T-72주력전차, BMP-1 보병 전투차량, MT-LB 레도군수차량 및 화포류가 포함된다.

핀란드 육군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장비들은 구 소련 또는 러시아에서 생산된 것이며, 공군은 Mi-8 다용도 헬기도 운용중인데, MiG-21기의 경우는 McDonnell Douglas 사의 F/A-18 Hornet기와 대체후 곧 도태토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프랑스, Rafael 개발지연으로 항공모함 전력 차질

프랑스가 항공모함 탑재형 해상 요격기로 개발중인 Rafael-1기의 사업지연으로 신형 핵추진 항공모함을 1999년에 계획대로 진수한다고 해도 탑재할 항공기가 없게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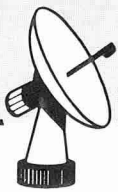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 5월 13일 내각이 국방비 삭감을 결정한 결과이며, 프랑스 해군이 현재 운용중인 Crusader 요격

기는 거의 40년이 경과 된 구형 장비로써 1999년에 도태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그 밖에 주요사업에 대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해군은 NFL-90 해상헬기를 60대 규모에서 27대만 구매 예정이며, 초도분 인도는 2002년에 개시 전망.

— 전략해상수송능력은 1998년에 Siroco 수륙양용 수송선의 인도로 보강될 것이며,



## 해외 레이다

추가 함정은 2000년과 2002년에 실전배치될 예정.

— 신형 핵공격잠수함 1번함을 2010년에 실전배치 계획.

— 해군의 Daulphine급 디젤 추진 잠수함은 금세기말 대체 장비 없이 도태될 예정.

## 美 정부, 중고장비 판매 지속 추진

美 정부는 미국 업체들에게 장비의 개량과 정비사업 수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중고 및 잉여장비에 대한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General Dynamics Land Systems 사의 경우, 구형 M60 전차와 같은 미제 무기체계에 대한 해외 개량 및 용역계약 비율이 전체 정비사업규모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한다.

美 해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출가능 기종으로는 A-6 공격항공기, P-3A/B 해상초계기, 구형 A-7 및 A-4 공격항공기, SH-3, SH-2, AH-1J 등 수백 만대에 달하며, 의회는 이미 Perry 급 프리깃함 8척(공여 4척, 임대 4척)을 바레인, 이집트, 터키에 제공하도록 승인한 바 있다.

장비가 잉여품으로 분류된 경우는 원가의 50%수준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공군의 F-16기, F/A-18기 외에도 육군의 M60A 전차, M113 병력수송 장갑차량, 해군의 E02 Hawkeye 공중조기경보기 등이 판매 대상장비로 분류되고 있다.

## 미국, 인도네시아에 F-16기 판매 임박

美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과

거 파키스탄에 판매되었다 인도가 보유되었던 F-16기중 9대를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는 문제가 가격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군은 항공기 단가를 8백만~9백만불 정도로 계산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이 1990년에 최초로 지불한 금액과의 차액 대당 16.5백만불은 미국방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파키스탄 관리들은 말했다.

美 국방부는 지난 4월 23일에 F-16기에 환급금의 일부로 124백만불을 파키스탄에 지불한 바 있으며, 추가로 160백만불은 FMS 판매 방법에 의거 물자를 공급할 예정이나, 아직도 3억불 상당의 환불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한다.

## 세계 각국의 무기소요 및 조달계약 전망

\* 호주 : Project Wagtail VHF 무전기 4,600대 구매를 위하여 수요군 기술검토 완료. (Siemens Plessey Electronic Systems, Stanilite Electronics, Transfield Defence Systems 참여)

육군은 400대의 Bushranger 2 4×4 구륜보병기동차량(IMV) 구매계획. (Reumech OMC, British Aerospace Australia, Shorts, Perry Engineering, Timoney 참여)

\* 벨기에 : 신형 6×6 구륜



M113 병력 수송장갑차량



장갑차량 54대 구매 경쟁입찰 추진. 96년말 업체선정 계획. 계약 예정금액 BFr.1,200백만(미화 40백만불) 특수 정글화 3,810족 4개월이내 구매 계획.

\* 남아공 : Denel-Atlas의 Rooivalk CSH-2 공격헬기 초도분 구매.

- 육군 : 경장갑병기(Euro-missile Milan의 대체장비),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신형 장갑수송차량, 신형 보병수송차량(2005년부터 Ratel 대체용), 신형 공수대대병기 수송차량.

- 해군 : 중형헬기 탑재형 3천톤급 미사일 장착 콜벳트함 4척, Daulphine급 함정 대체용(2006년) 잠수함 3척.

- 공군 : Impala Mk I 훈련기와 Mk II 경공격기 대체 항공기, 신형 장거리 해상초계기, 국경 항공정찰 레이다, 신형 중수송기(2005년), 신형 제트 전투기(2010년)

\* 스페인 : Lockheed Martin Government Electronic Systems사와 Empreza Nacional Bazan사간 Baseline 5 Phase III Aegis 방공장비 공동생산계약 추진중.

\* 태국 : 96년말경 GBU-12 레이저 유도탄 사거리 확장 Kit 24대를 미국의 Leigh Aerosystems사로부터 구매 예정.

이 Kit는 500파운드 또는 1000파운드형 폭탄에 적합하며,

Mk 82 폭탄을 4만피트 상공에서 투하시 도달거리를 140km까지 연장 가능하고, CBU-87/B의 경우는 3만5천피트 상공에서 투하시 85km까지 도달 가능.(예상 단가 : \$ 35,000)

美해군이 현재 항공 시험중이며, 프랑스, 사우디,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 영국 등도 구매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영국 :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Westland Sea King AEW2 공중 조기경보헬기 10대 구매사업에 대한 입찰서 기술검토중.

계약 예상금액은 1억 파운드(미화 150백만불). GEC-Marconi Avionics, Lockheed Martin Aircraft Services(Hughes Aircraft사와 Westland Helicopters사가 팀을 이룸), Racal Thorn Defense사 등이 입찰서 제출.

General Dynamics Land Systems사의 경우, 구형 M60전차와 같은 미제무기체계에 대한 해외 개량 및 용역계약 비율이 전체 정비사업규모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한다.

美해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출가능 기종으로는 A-6 공격항공기, P-3A/B 해상초계기, 구형 A-7 및 A-4 공격항공기, SH-3, SH-2, AH-1J 등 수백대에 달하며, 의회는 이미 Perry급 프리깃함 8척(공여

4척, 임대 4척)을 바레인, 이집트, 터키에 제공하도록 승인한 바 있다.

장비가 잉여품으로 분류된 경우는 원가의 50%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다.

공군의 F-16기, F/A-18기 외에도 육군의 M60A 전차, M113 장갑병력수송차량, 해군의 E-2 Hawkeye 공중조기경보기 등이 판매 대상장비로 분류되고 있다.

## 기타 주요 短信

\* 미국의 Freightliner사는 동사의 전략적 파트너사인 Oshkosh Truck 사가 美 육군과 필리핀 FMS 판매를 위해 생산하는 M916A1과 M917A1 트럭용으로 60 Series 엔진 269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 대만은 Rockwell Collins GRC-171D(V)4 지대공 UHF 통신장비 22.7백만불 상당을 FMS 방법에 의거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 스페인 육군은 Eurocopter AS532-UL Cougar 헬기 15대(207백만불)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랑스 공군용 CCASA의 CN-235수송기 7대 등 100% 상당의 절충교역계약도 동시에 체결했는데, 장비인도는 96년 중반부터 시작하여 5년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국방부 조달본부 외자부 제공)